

Profile



지휘_김준영

- 경기예술고등학교 기악과 피아노전공 졸업
- 서울대학교 정기오페라 'Don Pasquale' 반주 및 부지휘 (2013)
- SNU Philharmonic Orchestra 정기 연주회/협주곡의 밤 지휘
- 2016 한국 지휘자 협회 주최 지휘캠프에서 신예지휘자로 선발되어 원주시립교향악단 지휘
- 전 국립경향교향악단 부지휘자
-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지휘전공 재학
- 사사 김덕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지도교수 김덕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1,2학년으로 구성된 Philharmonic Orchestra는 학구적인 자세로 이미 정상의 기량을 인정받고 있으며 국내 대학 오케스트라의 리더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세계 유수의 대학 오케스트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 오케스트라이다. 김덕기 교수의 지도하에 매년 2회의 정기연주회와 수준 높은 오페라를 무대에 올리고 있으며, 실력있는 학생들을 발굴하여 협연함으로써 음악적, 교육적 경험을 넘어서고 있다. 또한 대학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대학 오페라 페스티벌 등 대외적인 연주에서도 성공적인 성과를 이루며 한층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원명단 (*1학년 학생들은 가나다 순으로 기재되었음)

BEETHOVEN

Fl. 조민진 윤선호 조은비
Ob. 김수아 윤하영
Cl. 김현수 손민
Fg. 김진술 정영서 이다인
Hn. 조은영 최민주 조예지 김찬우
Trp. 김다빈 최예린 안경미
Tbn. 이슬아 편우빈 원종현
Timp. 오경민

악장 김경민

Vn. I 강승희 이민경 권재현 김지현 김효진
배소희 서명운 윤덕희 이가온 허가영
Vn. II 이승희 최영지 박주연 강승현 박가은
박서현 여름 유해원 이화진 최지원
Va. 오현민 한진호 강승주 나은수 신윤진 안정현
Vc. 이영은 유하나 서정민 김예진 김정현 박주영
이민지 이현아 조윤재 조희우
Db. 김민철 김소정 김하연 홍지연

TCHAIKOVSKY

Fl. 조민진 윤선호 조은비
Ob. 김수아 윤하영 조연수
Cl. 이준형 김찬우
Fg. 이다인 정영서
Hn. 최민주 조은영 김영진 김찬우
Trp. 안경미 최예린
Tbn. 편우빈 이슬아 원종현
Tb. 손예선 김성수
Timp. 이장용
Per. 오자성 김태영
Hp. 유재인 김경화

악장 이승희

Vn. I 최영지 박주연 강승현 박가은 박서현
여름 유해원 이화진 최지원 허가영
Vn. II 김경민 강승희 이민경 권재현 김지현
김효진 배소희 서명운 윤덕희 이가온
Va. 한진호 오현민 강승주 나은수 신윤진 안정현
Vc. 유하나 이영은 서정민 김예진 김정현 박주영
이민지 이현아 조윤재 조희우
Db. 김소정 김민철 김하연 홍지연



College of Music |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지도교수_김덕기 지휘_김준영

2017. 5. 8 (월) 오후 7시 |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

주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주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획홍보실 전석무료 문의 02-880-7903

Program



L.v.Beethoven
Symphony No.5 in c minor, Op.67

INTERMISSION



P.I.Tchaikovsky
Romeo and Juliet Overture-Fantasia

Program Note

L.v.Beethoven
Symphony No.5 in c minor, Op.67

교향곡 3번 '영웅 교향곡'을 발표하며 음악사에 새 장을 연 베토벤은 그 여세를 몰아 곧바로 다음 교향곡 작곡에 착수하나, 그에게 필생의 사랑이 찾아오면서 이 작업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 피아노 소나타 23번 '열정'을 헌정했던 프란츠 폰 브룬스비크 백작의 여동생인 요제피네 폰 다임은 꽃다운 나이에 미망인이 되어 경제적 곤궁에다 신경쇠약에까지 시달리게 되는데, 그녀에게 위로의 손길을 뻗친 사람이 바로 베토벤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그녀의 집안사람들의 반대로 두 사람은 결별하게 되고, 베토벤은 어둡고 투쟁적인 음악으로 복귀하여 1806년 말 '32개의 변주곡 c단조'와 1807년 초 '코리올란 서곡'을 거쳐 마침내 'c단조 교향곡'을 다시 붙잡는다. 이 5번 교향곡은 1808년에 완성되어 같은 해 12월 22일 빈 극장에서 베토벤 자신의 지휘로 초연되었는데, 이 음악회는 마찬가지로 초연되었던 교향곡 6번과 피아노 협주곡 4번, C장조 미사의 일부, 합창 환상곡과 함께 무려 네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연주 순서상으로는 교향곡 5번이 6번보다 늦게 연주되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로 생각하고 존경해 마지않던 나폴레옹의 황제 즉위 소식을 듣고 불같이 화를 냈던 베토벤이었지만, 이 곡이 오히려 프랑스 청중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얻었다는 것은 꽤나 아이러니한 일이다. 파리에 서 초연되었을 때, 강한 승리감을 안겨주는 4악장의 시작 부분을 듣고 프랑스의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연상한 청중들 중 한 노병이 "이건 황제다! 황제 만세!"라고 외쳤다는 일화가 전해지기도 한다.

P.I.Tchaikovsky
Romeo and Juliet Overture-Fantasia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바탕으로 한 관현악 작품에 대한 차이코프스키의 생각은 1869년 발라키레프의 권유로부터 시작되었다. 발라키레프 자신도 이 테마에 크게 끌리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마치 이미 하나의 음악으로 완성되어 있는 것처럼 전체적인 개요와 세부사항까지 차이코프스키에게 설명했다고 한다. 완성된 곡은 이듬해 1870년 모스크바에서 루빈슈타인의 지휘에 의해 초연되었는데 차이코프스키는 후에 서주를 비롯한 상당 부분을 수정하였고, 이 두 번째 버전 또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초연된 후 발라키레프의 비판과 조언에 따라 재현부의 마지막 클라이맥스 부분과 코다가 다시 한 번 수정되어, 1881년 현재의 최종본이 출판되었다.